

# “동서고속도 제천~삼척구간 조기 착공하라”

국회의원·지자체장 국토부 장관에 주민서명부 전달 강력 촉구

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15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동서고속도로 제천~삼척 구간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 장관에게 동서고속도로 구간이 개통 또는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제천~삼척 구간(123.2㎞)만 현재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며 조기 착공을 건

의했다. 새누리당 이이재(동해-삼척) 국회의원은 “(제천~삼척 구간 미추진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SOC의 불균형이 심화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지역의 산업기관 유치가 어려워지고 인구 유출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폐광지 도심회생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마무리하기 위해 동서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15만여명이 참여한 주민서명부도 함께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2명의 국회의원과 심규언 동해시장, 김연식 태백시장, 박선규 영월군수, 최성철 삼척부시장, 장대순 정선군부군수, 해당 시·군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kwnews.co.kr

## 상반기 조기 집행 실적 8,411억 초과 달성

강원조달청 목표 대비 100.7%

강원지방조달청(청장 : 한윤자)이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강원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집행액은 총 8,411억원으로 조기 집행 목표 8,354억원의 100.7%를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적은 장기계속공사 차수 계약의 조기 집행 독려, 행정소요일수 단축 등 수요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사업 분야별 실적도 시설공사 2,272억원, 물품구매 6,139억원 등으로 전년 동기 실적 대비 각각 36.3%, 17.9%씩 증가했다.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5,084억원, 지방기업 실적은 7,645억원, 여성기업 실적은 74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한윤자 청장은 “조기 집행 계획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도내 수요

기관이 조달행정을 믿고 맡겨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수요기관 간담회, 지역 제품 판로 지원방안 등을 통해 현장 중심·수요기관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위윤기자



◇강원일보 창간기념 특별기획전시 '분단 70년, 2015 남북미술전'이 15일 춘천미술관에서 열려 최문순 지사, 김시성 도의장, 민병희 교육감, 최동용 춘천시장, 성기문 춘천지방 법원장, 이희중 강원일보 사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개막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권태명기자 kwon80@kwnews.co.kr

# 미술로 허문 분단의 벽, 통일이 성큼

강원일보 창간 70주년 기념 기획전 시로 마련된 '분단 70년, 2015 남북미술전' 개막식이 15일 오후 춘천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날 전시회 개막식에는 이희중 강원일보사장을 비롯해 최문순 지사, 김시성 도의장, 민병희 도교육감, 성기문 춘천지방법원장 등 도내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모여 역사적인 전시회 개막을 축하했다.

최문순 지사는 인사말에서 "전세계의 이념전쟁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

춘천미술관 20일까지 ... 北 공훈·인민예술가 등 49명 작품  
최문순 지사 "남북 냉전상황 뚫어나가는 의미있는 전시"

지면서 종식됐지만, 대한민국과 남북으로 나뉘어 아직 갈등하고 있다"며 "남북의 냉전상황을 강원도의 강원일보가 앞장서서 뚫게 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김시성 도의장은 "분단 70년이 됐다. 문화가 우선된다면 남북관계가 호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북한의 일상생활 그림을 보니 한민족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준 강원일보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민병희 도교육감은 "분단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개최되는 이번 남북미술전의 의미가 크다"며 "그림을 보며 통일이 되는 시대를 상상하고, 또 상상한 대로 현실로 이루어져 통일의 날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북한 공훈·인민예술가 29명의 작품과 분단의 현장 가까운 곳에서 창작하고 있는 도 출신 작가 20명 등 모두 49명의 55개 작품이 오는 20일까지 전시된다.

특히 북강원도 평강군 출신으로 북

한에서 천재 화가로 불리는 정은너씨의 '자화상'과 '소녀' 등 2점도 함께 공개돼 세계 유일 분단도인 남북강원도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이날 전시회에는 최동용 춘천시장, 신승호 강원대 총장, 이면우 춘천교대 총장, 이우용 춘천MBC사장, 정재용 도의원, 김건영 NH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장, 정동기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정성현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이사장, 김일해 세계로평화나눔문화축전조직위원장, 한명욱 도여협회장, 오제환 강원문화재단 사무처장, 김명숙 도미협회장과 참여작가 등이 참석했다. 오석기·이하늘기자

## / 이 모 저 모 /

### "그림속 북강원도 꼭 한번 가보고파"

◇남북미술전 개최식이 끝난 후 최문순 지사, 민병희 교육감, 성기문 법원장 등은 큐레이터의 안내로 작품 설명을 경청.

특히 북강원도의 해금강과 금강산, 동해내륙선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통일된 강원도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려내는 이야기를 나눠

관심이 집중. 최 지사는 "그림을 통해 아름다운 북강원도를 접해 보니 통일이 되면 꼭 한번 직접 가보고 싶다"고 소회.

또 완성도가 높은 북한 작품을 하나씩 눈으로 뜯어보며 감탄하고 작품당 억단위를 넘나드는 높은 가격에 놀라움을 표현.

### 도내 미술계 인사 대거 참석

◇함섭 한지 작가, 전태원 작가, 소나무 작가로 알려진 우안 최영식 작가, 구자근 작가 등 원로 화가들을 비롯해 도내 미술계 작가들이 대거 참석해 서로 근황을 전하는 '만남의 장'이 만들어져 눈길. 특히 도출신 작가의 작품은 작가들이 직접 설명하며 관람객들의 이해도를 높여 박수를 받기도.

### "웅장한 걸작 많다" 감탄

◇이재언 2015 평창비엔날레 예술감독은 2017년 비엔날레 때 '남북미술전'을 대표적인 테마 전시회로 개최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현역 화가인 황효창 2015 평창비엔날레 조직위원장은 "웅장한 북한 예술작품들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느낄 수 있는 때어난 걸작이 많다"고 감상 소감.

## 상반기 조달 100% 달성

### 강원조달청 8411억원 집행

강원조달청(청장 한윤자)이 상반기 조달실적을 100.7%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12월까지 집계된 조달사업실적은 8411억원이다.

이는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8354억원을 100.7% 달성한 수치다.

시설공사 분야는 2272억원으로 조기집행 계획 2120억원 보다 107.2% 초과 달성했다.

전년 동기 실적 1667억원 보다 136.3% 초과했다.

물품구매는 613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실적 5210억원 보다 117.9% 높았다.

한윤자 강원조달청장은 “조기집행 계획을 초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도내 수요기관이 조달행정을 믿고 맡겨준 결과”라며 “현장 중심은 물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 모두가 만족하는 조달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은복

## 국토부 장관 “동서고속도 조기착공 최선”

### 이이재·염동열 의원 등 건의에 긍정 반응 “지역상황 고려 5개년 건설계획 반영 노력”

국토교통부가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건설 사업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누리당 이이재(동해-삼척)·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조기 착공을 건의 받은 후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5개년 고속국도) 건설계획에 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고속도로는 안중~충주

(103.3km)구간이 2013년 개통됐고, 충주~제천(23.9km)구간이 7월 개통되는 등 대부분 마무리 됐지만 제천~삼척 구간(123.2km)만 현재 기본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의 부 빈익빈 원리가 SOC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도로 개설이 안 되고, 산업기관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조기 착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염 의원은 “수년간 수 조

원의 재원을 투입해 투자한 폐광지 도심회생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마무리하기 위해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과 염 의원은 이날 유 장관에게 동서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주민 15만 432명의 의지가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

김연식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장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조기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진민수·태백/김우열·김여진

## 물없는 소하천에 정비공사 ‘눈살’



영월군이 식수난을 겪는 영월읍 영흥1리 속칭 속골마을 오무천 일대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고 있다. 영월/방기준

영월읍 속칭 속골마을 일대 군, 재해예방 명목 500m 구간 주민 “사계절 바짝 말랐는데”

“물 한방 흐르지 않는 하천은 왜 정비 하나요?”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영월읍 영흥1리 속칭 속골마을 일대에서 정작 필요한 물공급 대신 하천정비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영월군은 지난 4월부터 총사업비 13억5000만원을 들여 속골마을 오무천 정비사업에 들어가 내년 2월 완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재해예방을 명목으로 총 500m 구간에서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속골마을주민들은 “장마철 폭

우를 제외하면 이 구간 하천은 사계절 내내 바짝 마른 건천(乾川)이어서 무슨 정비를 한다는건지 의문이다”며 “오히려 하천정비 예산으로 생활용수를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는 광역상수도 건설이 더 필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울머 최악의 가뭄까지 겹치자 마을 하천변 일대는 물줄기를 기대할 수 없고 흙먼지가 날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사 구간내 폐돈사부지 보상비와 폐기물처리비도 지출된 것으로 알려져 특혜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영월군 관계자는 “장마철 오무천 상류의 유속 저하를 위한 저류기능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영월/방기준 kjang@kado.net